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 예수님의 출애굽 (마 2:13-23)

## Exodus of Jesus (Matt. 2:13-23)

야곱의 꿈, 요셉의 꿈,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선지자들의 꿈 등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God often conveyed His will through dreams: Jacob’s dream, Joseph’s dream, Pharo’s dream, Nebuchadnezzar’s dream, and the prophets’ dreams etc. The reason why God spoke through dreams, like these, was because the complete revelation of God was not revealed. However, now, God does not reveal His Word through dreams anymore due to the Bible being the complete and full message.

Joseph was able to take the child Jesus and to escape to Egypt according to the message brought by an angel of the Lord who appeared in a dream. Matthew connected the birth of Jesus, the escape to Egypt, and all the events that led Him back to Galilee with the Exodus affair in the Old Testament.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말씀한대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애굽으로의 피난,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된 모든 일들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 철저한 순종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말씀은 요셉으로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은 산모와 아기가 피난 가기에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은 바로 그 날 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요셉이 뒤를 따라 나서는 마리아, 그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1. A complete obedience

It was a difficult command to understand for Joseph to take the child Jesus and escape to Egypt. Egypt was a very far place for the child and his mother to travel to. However, Joseph obeyed the Lord in silence. That is the greatness of Joseph. At the same night that he was directed in a dream, Joseph took the child Jesus and Mary and left for Egypt. Mary also immediately and perfectly obeyed the Lord by following Joseph.

2.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뤄진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뤄진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순간,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성취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언약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전 3장)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 God’s will is achieved in His timing

The obedience of Joseph and Mary came from the faith in which God’s Word clearly brought forth. And God’s method is much safer than men’s. As Joseph and Mary obeyed God’s word, they were able to realize that all of the things that happened were the process of unfolding the events that perfectly accomplished God’s covenant.

Therefore, whatever we do, we must live our life to obey God’s word. If so, it is believed that God’s blessed covenant toward us will be achieved at the time of God and by the method of God.

The Bible says,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Eccl. 3).

A time to wait was not easy for Joseph and Mary. But they were sure that God’s word would surely be achieved. And, since they obeyed God in an environment of disobedience, they enjoyed a wonderful grace.

3.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사건이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종된 자리에서 출애굽 시키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 등 모든 것들로부터 출애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3. Our escape in Jesus Christ

The greatest and most important event in the New Testament is that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he redeemed us from sin and death. And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Old Testament is the Israel people’s escape from Egypt. These two events link each other. In other words, Jesus’ escape to Egypt led to the fulfillment of His role as savior and redeemer as did Israel’s escape from Egypt.

May we all live out our escape from the world, in every area of our new life, in and with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애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과 가정, 일터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We must live our life to vigorously obey Jesus Christ’s Word. Obedience is waiting on God’s time and method. By emulating the obedience of Joseph and Mary,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enjoy your life with your family, at work and Church, to achieve God’s covenant.

# 제11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

## 4월29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 제11대 장로후보 20명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다음 주일(4월29일) 찬양예배 후 본당2층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제직(서리집사, 집사, 시무권사, 시무장

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투표하기 바란다.

### 4월 학습·세례식

#### 오늘 찬양예배 시 거행

4월 학습·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거행된다. 지금까지는 수요일예배 시에 있었으나 금년 4월과 10월 학습·세례식은 찬양예배 시에 있게 된다. 나머지 6월, 8월, 12월 학습·세례식은 종전과 같이 수요일예배 시에 있게 된다.

### 김명현 박사 초청, 금요기도회

4월 27일(금) 성경과학선교회 대표이신 김명현 박사를 다시 한번 모시고 생명의 창조기원과 간증의 시간을 가진다.

#### -김명현 박사 소개-

- KAIST 재료공학 석,박사
- 전 한동대학교 교수
- 전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 현 성경과학선교회 대표



### 오르가니스트 임명

#### 주일3부예배(임마누엘찬양대) - 최수황 집사 영어예배부(예루살렘찬양대) - 김은성 선생

우리교회 당회는 그동안 주일3부예배(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던 강민정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영어예배부(예루살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고 있는 최수황 집사를 임명하고, 영어예배부(예루살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로는 김은성 선생을 신임 오르가니스트로 임명하였다.

김은성 선생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 대학원과 워싱턴 주립대학교 음악대학원을 각각 졸업하였으며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겸임교수, 장신 콘서바토리 출강, 장신대 채플 오르가니스트를 맡고 있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5]

(문 40) 출 24:9-11에서 이스라엘의 귀인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했으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서가 공포된 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향연이 산상에서 베풀어지는 장면이 출24:9-11의 내용입니다.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언제나 이 같은 향연이 열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 언약을 공포하고 백성들은 만장일치로 언약에의 순종을 맹세하며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언약의 공포를 마친 후 하나님편의 모세와 백성의 대표인 아론 3부자와 70인 장로는 함께 산상에 다시 올라가 여호와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이미 이른 곳이었습니다(출24:1) 그때는 언약을 받기 위함이었고 이번은 언약이 성립된 후의 향연에 참여키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은 산상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출33:20, 사13:22) 하지만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특별한 경우로 언약체결의 중요성도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1:18)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의 나타하신 현상의 한 가지를 보았을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셨고(창18:2)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등을 보이셨으며(출33:23, 민12:8)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 주셨고 에스겔은 사람의 모양같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현상들이었고 그의 본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다함은 언약체결을 축하하는 회식이 열린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하나님을 뵈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에 동의를 포함하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 하시게 된 것입니다. 미래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어전에서의 축복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시다

교통약자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시다.

### 목회자 세미나

##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에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상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많은 이들이 개탄의 소리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며,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강단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기치 아래 서울교회가 시작한 목회자세미나가 어느덧 21년, 41학기를 맞았고, 그간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는 연인원 14,300여명이 된다. 매주 목회자를 대접하려고 토요일부터 장을 보고, 주일에 재료를 다듬고, 월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준비를 해온 제2권사회원들, 수년간 자비량으로 차를 대접하는 분, 접수처에서, 안내위원으로, 서적판매, 차량위원 등등 목회자세미나를 위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 41학기 목회자세미나는 5월 7일(월)에 끝난다.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생명의 우물파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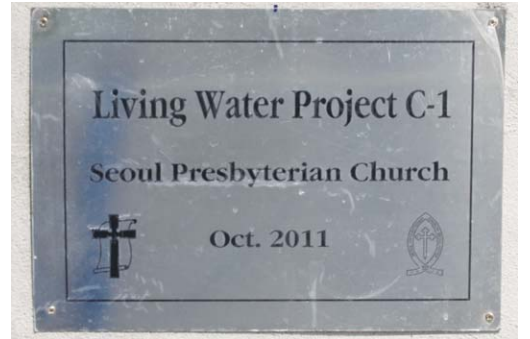
## Living Water Project

신용식장로 (생명의 우물파기 운동본부 본부장)

우리 서울교회는 세계 각처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단기선교와 의료선교를 다녀오신 봉사팀 단원들이 들려주시는 안타까운 사연과 2곳의 우물을 파주기 위하여 공사비 전액을 마련해주었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박노철 담임목사님, 당회원과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은 기도는 영혼구원을 위한 생명의 우물파기 운동을 시작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금으로 금년 들어 캄보디아 3곳, 미얀마 2곳, 방글라데시 2곳 합계 7곳에 생명의 우물을 완공하여 현지 성도들과 학생들은 물론 군부대 장병들까지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하여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다락방과 교구는 물론이고, 전도회와 선교회, 교회학교, 개인 등이 목적헌금으로 모아 주



셔서 곧 미얀마 2곳과 방글라데시 13곳, 아프리카 1곳 등 합계 16곳 총 23곳에 “생명의 우물 파기” 공사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 심한 갈증과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 < 생명의 우물파기 진행상황보고 >

| 대상국가  | 시공 예정 지역                   | 우물 명칭  | 선교사                  |
|-------|----------------------------|--------|----------------------|
| 방글라데시 | 쇼리오블 지역                    | B-1 완공 | 조남혜 선교사              |
| 방글라데시 | 라사히 지역 소망교회/학교             | B-2 완공 | 박진영 선교사(김미성)         |
| 미얀마   | 양곤신학교                      | M-1 완공 |                      |
| 미얀마   | North Dagon 임마누엘 교회        | M-2 완공 |                      |
| 캄보디아  | 깜중츠낭 지역                    | C-1 완공 | 이재율 선교사              |
| 캄보디아  | 깜부롱 지역                     | C-2 완공 | 이재율 선교사              |
| 캄보디아  | 해병 31 여단                   | C-3 완공 | 이재율 선교사              |
| 미얀마   | South-Dragon Home Church   | M-3    | Mrs.Thandar Khine Oo |
| 미얀마   | Piang-te-Village, Ralhine, | M-4    | Rev. Cung Uk         |
| 케냐    | 마사이 마을                     | k-1    | 김낙형 선교사              |
| 방글라데시 | 아민비잘 공동체                   | B-3    | 박진영 선교사(김미성)         |
| 방글라데시 | 목따가차 교회                    | B-4    | 조남혜 선교사 (윤연석)        |
| 방글라데시 | 목따가차 마을 1                  | B-5    | 조남혜 선교사 (윤연석)        |
| 방글라데시 | 목따가차 마을 2                  | B-6    | 조남혜 선교사 (윤연석)        |
| 방글라데시 | 무릉 부족 마을 교회                | B-7    | 조남혜 선교사 (이경엽)        |
| 방글라데시 | 루디반 교회                     | B-8    | 조남혜 선교사 (이경엽)        |
| 방글라데시 | 가끄리초리 마을                   | B-9    | 조남혜 선교사 (이경엽)        |
| 방글라데시 | Kewa Church & Village 1    | B-10   | 박진영 선교사 (김미성)        |
| 방글라데시 | Kewa Church & Village 2    | B-11   | 박진영 선교사 (김미성)        |
| 방글라데시 | Kewa Church & Village 3    | B-12   | 박진영 선교사 (김미성)        |
| 방글라데시 | Kewa Church & Village 4    | B-13   | 박진영 선교사 (김미성)        |
| 방글라데시 | 세르부르 교회                    | B-14   | 박진영 선교사 (김미성)        |
| 방글라데시 | 또로리 교회                     | B-15   | 박진영 선교사 (김미성)        |

나의 하나님

## 님은 갓습니다

화사한 봄날 아침  
 기지개 켜는 나무들 소리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신 이  
 만남은 아름다웠지만  
 헤어짐은 눈물ियो  
 아쉬움ियो 후회이어라

거친 세상 함께 했던  
 돌고 돌아온 긴 여정의 반려자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가던 길  
 말없이 홀로 떠나가니  
 그리움의 강물 끝없이 흘러

빛바랜 추억의 발자취  
 눈앞에 펼쳐놓고 주저앉았네  
 울음소리 뒤로 하고  
 봄이 오는 길목따라  
 가벼린 이

이별은 뜻밖에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슬픔에 젖는다  
 그러나 우린  
 시간이 흐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눈물 지운다

슬픔에 젖은 권사님을 보며  
 2012년 3월 31일

정애신 권사 (시인, 11교구)





# 나오, 나오, 나오!

## 전행자권사(12교구, 소망부 5반 교사)

할렐루야!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주일에는 소망부에서 성경 퀴즈대회가 열려 학생들 모두가 즐겁고 화기애애하며 매우 학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저서인 사도행전 강해서를 가지고 교사 중심의 반별 공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서명철 지도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즐겁게 가르쳐 주셔서 소망부가 많이 부흥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성경퀴즈가 열렸습니다.

소망부에서는 성경퀴즈가 처음이라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 적지 않게 염려를 하였는데 목사님께서 재치있게 잘 리드해 주셔서 학생들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퀴즈 시간 내내 서로 답을 맞히려고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님께서 각 반에는 2문제씩을, 전체 학생들에게는 40문제를 내셨는데 1점짜리, 2점짜리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점수가 추가 되거나 감점되기도 하여 성경퀴즈 시간 내내 소망부 학생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마치 초등학생들처럼 “나오, 나오, 나오”를 외치면서 서로 문제를 맞추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번 퀴즈대회는 반별 대항이었고, 소망부는 모두 남자가 3반, 여자가 10반이었는데 목사

이번 성경퀴즈는 소망부 학생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고,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들 했습니다. 또한 부장단에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아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또 사랑부에서 맛있는 떡도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즐겁게 배우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소망부로 오세요. 7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민약한 자구제

# 행복한 쇼핑



제1권사회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또 있더라면서 지난 주에 어떤 권사님이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옷도 좋구요, 신발이나, 여름 이불, 또 소형 가전제품 등 무엇이든지 가져다 주시면 나눔의

집에서 요긴하게 판매하겠습니다.

41학기 목회자 세미나가 8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물품들로 가득찬 나눔의 집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목회자님들께서 행복한 쇼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시는 물건들은 대부분 자신의 것이 아닌 교회 교우들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물건을 고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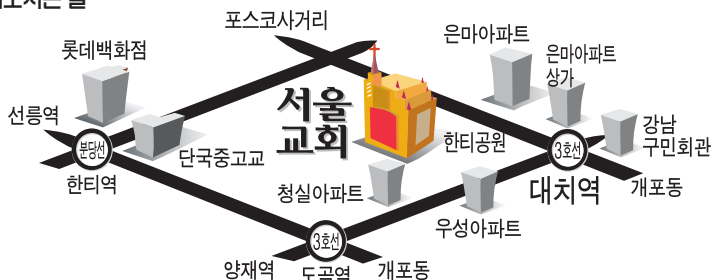
그간 몇 차례 옷장을 정리하며 물품을 기증했지만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일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20분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2일(주) 시드니 영락교회(1, 2부) 성결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 주안교회에서 찬양예배 설교를 한다. 23일(월)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한다.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WRF(세계개혁신의협의회) 국제이사회에 참가한다. 27일(금) 귀국한다.

■ 주간식당봉사: 한나전도회(4.22) 리브가전도회(4.29)

■ 금주의 식사: 정현구 집사 최복희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다음 주일에 있을 제 11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 될 수 있도록
2. 5월 13일 주일에 있을 장로, 집사, 권사의 항존직 투표 일정을 통해 오직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도록
3. 4월 27일에 귀국하시는 원로 목사님 내외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복음의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4. 김명현 박사 영물 초청 금요집회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창조신앙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